



## 연옥

편집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 죽은 후에 정화를 거쳐야 한다. 교회는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이러한 정화를 ‘연옥’이라 부른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030-1031)

교회는 11월을 위령성월로, 특별히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정하여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에 인용한 가톨릭교회교리서의 교리 내용처럼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직접 뵈오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거쳐야 하는 과정, 즉 연옥(煉獄)이 있다는 것이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이다. 연옥이라는 우리의 표현만 보면 불같은 단련을 받는 감옥과 같은 장소를 상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연옥을 지칭하는 라틴어는 purgatorium으로서 purgare, 즉 정화(淨化)하다라는 뜻과 상관 있는 말로서 ‘정화하는 일’, 혹은 그저 ‘정화’를 의미한다. 연옥은 상상을 초월하는 뜨거운 불로 이글거리는 감옥과 같은 곳이라기보다는 정화의 과정 자체를 뜻한다. 그러나 이 정화의 과정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사건이다. 죽은 이들이 만나게 되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느 불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의 계명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의 불 앞에서 살을 태우는 것과 같은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교회는 연옥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권고를 통해서 아직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벗어 버리고 이웃을 기억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준다.

※참고한 자료

최영철, ‘연옥’, 한국 가톨릭 대사전 제9권; 프란츠 요셉 녹케, 종말론, 183-188.